

조사보고서

2021-3

2021년 3/4분기

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

2021. 7



I. 조사의 개요

1. 조사목적

- ◆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·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, 정부 및 시·도지자체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.

2. 조사기간, 조사방법

- ◆ 2021년 2/4분기(4, 5, 6월) : 실적기간
- ◆ 2021년 3/4분기(7, 8, 9월) : 전망기간
- ◆ 조사기간 : 2021. 6. 9. ~ 2020. 6. 22. (휴일제외 10일)
- ◆ 조사방법 : 설문지 조사

3. 조사대상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**제조업체** 186개사
- ◆ 응답개수 : 68개 (설문지 회수율 : **36.6%**)

4. 조사내용

- ◆ 전반적인 체감경기(경기실적 및 전망)
- ◆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

5. 집계·분석

- ◆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·처리

6. 기업경기 실사지수(BSI)의 작성방법

- ◆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(상승, 증가),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.

기업 경기 실사지수(BSI)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.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(BSI)} = \frac{\text{증가(+)}\text{표시업체 수} - \text{감소(-)}\text{표시업체 수}}{\text{총 유효 응답 업체 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= Business Survey Index (0 ≤ BSI ≤ 200)

- ◆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(상승, 증가)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.

II. 2021년 3/4분기 기업경기 전망

1. 종합전망

가. 개황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(설문지 회수 : 68개, 회수율 : 36.6%)으로 2021년도 3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,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는 ‘83.8’ 로 조사되었음.
- ◆ 이중, 석유화학 연관업종(n=39개)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(BSI)는 ‘84.6’ 임

나.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

【종합 (N =68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1년 2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1년 3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80.9	83.8
	매출액	94.1	86.8
	영업이익	83.8	82.4
	설비투자	104.4	92.6
	자금조달여건	82.4	79.4

【석유화학 연관업종(N=39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1년 2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1년 3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94.9	84.6
	매 출 액	102.6	89.7
	영업이익	94.9	89.7
	설비투자	117.9	97.4
	자금조달여건	92.3	92.3

【일반업종(N=29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1년 2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1년 3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62.1	82.8
	매 출 액	82.8	82.8
	영업이익	69.0	72.4
	설비투자	86.2	86.2
	자금조달여건	69.0	62.1

2. 설문 결과 분석

- ◆ 2021년 3/4분기의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(BSI, n=68)는 ‘83.8’로 조사되었다. 응답 개수 : 68개 (설문지 회수율 : 36.6%)
- ◆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(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)인 100보다는 작은 값으로 “부정적”인 결과다.
- ◆ 2021년 3/4분기 조사결과는 전 분기 체감경기 지수와 비교하였을 때 소폭 하락한 수치다.
- ◆ 이는 2020년 4/4분기를 기점으로 회복세에 있던 체감경기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결과이다.

- 94.1(2020년 1/4분기)⇒ 73.2(2020년 2/4분기)⇒ 58.0(2020년 3/4분기)⇒ 44.1(2020년 4/4분기)⇒ 65.2(2021년 1/4분기)⇒ 91.5(2021년 2/4분기)⇒ **83.8(2021년 3/4분기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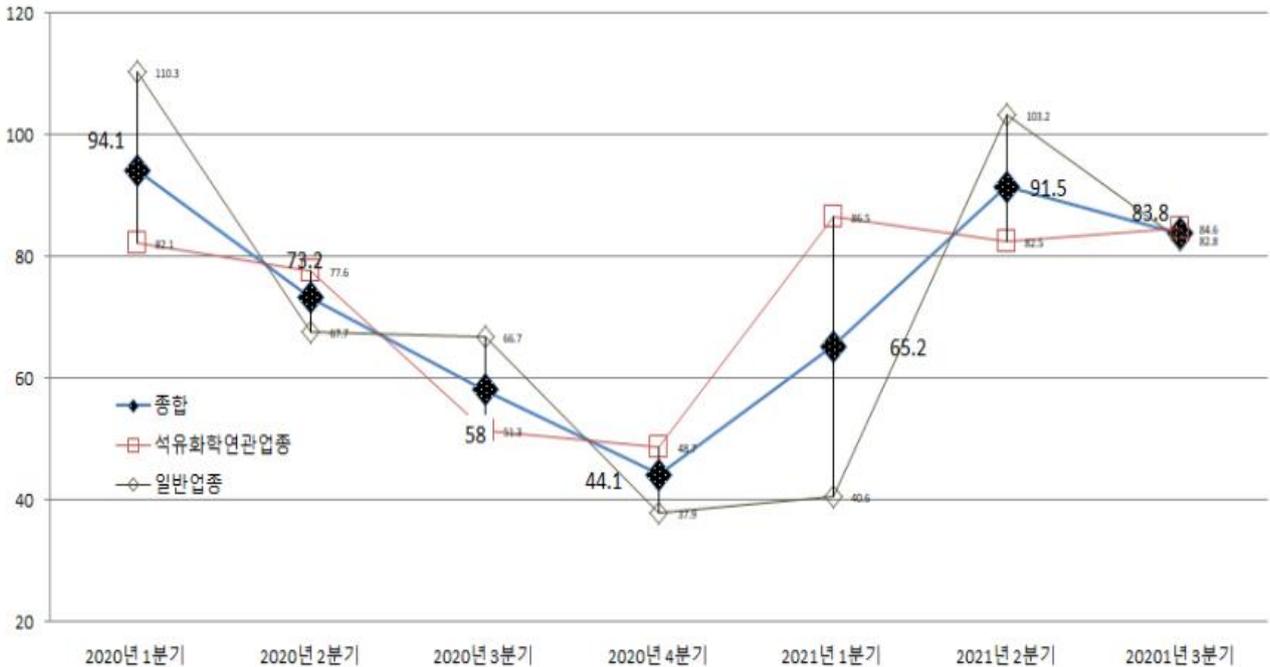


그림 BSI 추이 (2020년 1/4분기 ~ 2021년 3/4분기)

- ◆ 조사결과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세 등 경제 활력의 청신호에도 불구하고, 전남동부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제4차 유행의 초기단계라는 현실상황에 막혀 3/4분기 체감경기는 하락했다고 분석했다.(91.5 → 83.8)
- ◆ 이러한 결과는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요인이 교차하면서 석유화학 연관업종, 일반제조 업종이 3/4분기 경기전망에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, 석유화학 연관업종에서는 소폭 상승한 전망치를 내놓은 반면, 일반제조 업종은 지난 분기(2/4, 103.2)보다 20.4 하락한 부정적 결과로 조사되었다.
- ◆ 일반제조 업종은 지난 분기(2/4) 100을 상회하는 결과(103.2)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수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었으나, 이번 조사에서는 100이하의 부

정적인 결과로 전환되었다.

- 석유화학 연관업종 : 82.5(2/4분기) ⇨ 84.6(3/4분기) : 상승
- 일반제조 업종 : 103.2(2/4분기) ⇨ 82.8(3/4분기) : 하락

- ◆ 정유사 및 석유화학기업은 모두 수요측면에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다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.
- ◆ 정유사의 경우 꾸준히 상승하는 유가와 일시적이기는 하나 공급 부족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올해 상반기 대규모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하였고, 유가 회복으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긴장감 속에서도 발현되었다는 해석이다.
- ◆ 석유화학기업의 경우에도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제품 스프레드(판매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)가 하락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나 국내·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정상화되는 단계에 있고, 마진이 회복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증설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지난 분기대비 하락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.
- ◆ 그리고 정유사, 석유화학기업 모두 3/4분기 실적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19 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이유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결과로 전망치를 내놓았다고 분석했다.
- ◆ 반면 일반 업종의 경기전망지수는 지역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여수·순천·광양에서 발생하는 등 다수의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였고,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전 분기 대비 약 20% 가량 하락한 경기전망지수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. (103.2 ⇨ 82.8, 20.4 하락)

- ◆ 이번 체감경기조사는 코로나19 진정국면 속에서 지난 2020년 4/4분기 이후 회복세에 있던 경기전망지수가 지역감염 확산과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초기 등의 우려감 속에서 내수기반의 일반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강하게 하락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.
- ◆ 석유화학 연관업종은 코로나19 發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세계경기가 바닥권에서 회복세에 접어들어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마진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제4차 코로나19 대유행 우려에도 지난 분기 수준의 경기전망을 내놨다고 분석했다.

【경기전망조사 세부 항목 조사결과】

- ◆ 「귀사의 금년 상반기 실적(영업이익)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」이라는 질문에 “목표치달성·근접(48.5%)” > “목표치 미달(44.1%)” > “목표치 초과(7.4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“귀사의 금년 상반기 실적(영업이익)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”라는 질문에는 “내수시장 회복(51.2%)” > “글로벌 수요증가 등 대외여건 개선(24.4%)” > “환율·원자재 수급 등 채산성 요소 개선(11.1%)” > “기타(8.9%)” > “자금조달 여건 개선(2.2%)” = “정부의 광범위한 기업 지원 정책(2.2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귀사의 하반기 실적(영업이익)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·외 리스크는?»의 질문에 “환율·원자재가 변동성(28.5%)” > “내수시장 침체(26.8%)” > “최저임금, 기업부담법안 등 정책리스크(17.1%)” > “자금조달 여건 악화(12.2%)” > “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(7.3%)” > “미중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(4.1%)” > “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축소·중단(2.4%)” > “기타(1.6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
- ◆ 「백신 보급에 따라 코로나 종식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.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·기술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일정시차를 두고 서서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것이다(54.4%)” > “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시장·기술의 판도 자체가 크고 빠르게 바뀔 것이다(20.6%)” > “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·기술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(17.6%)” > “빠르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것이다(7.4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
- ◆ 「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·경제적 문제 해결과 관련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경제적 가치 창출을 우선시하되,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(69.1%)” > “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을 넘어, 사회적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(16.2%)” > “사회적 문제 해결은 정부와 국회에 맡기고, 경제적 가치 창출에 더 매진해야 한다(14.7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